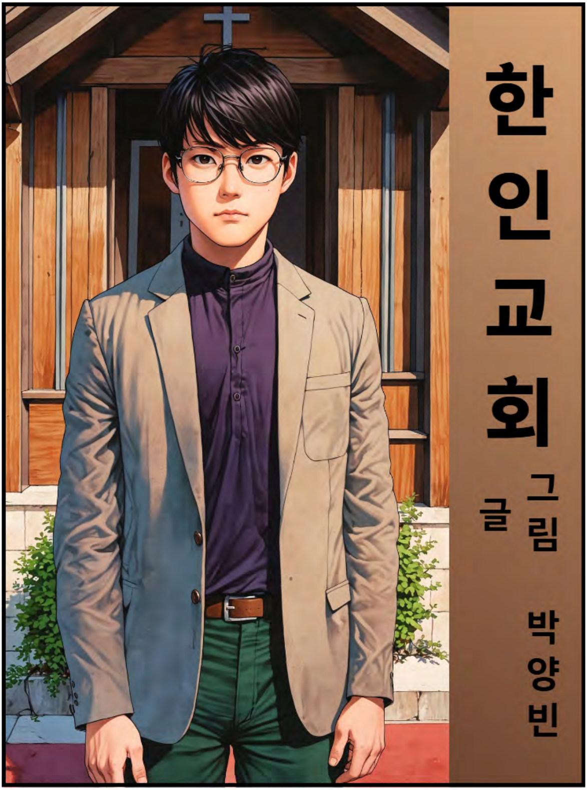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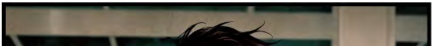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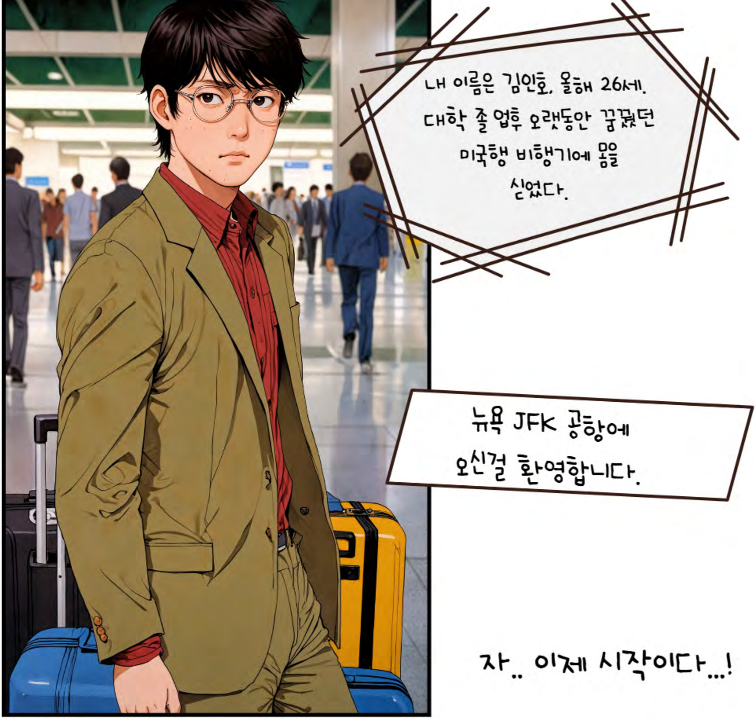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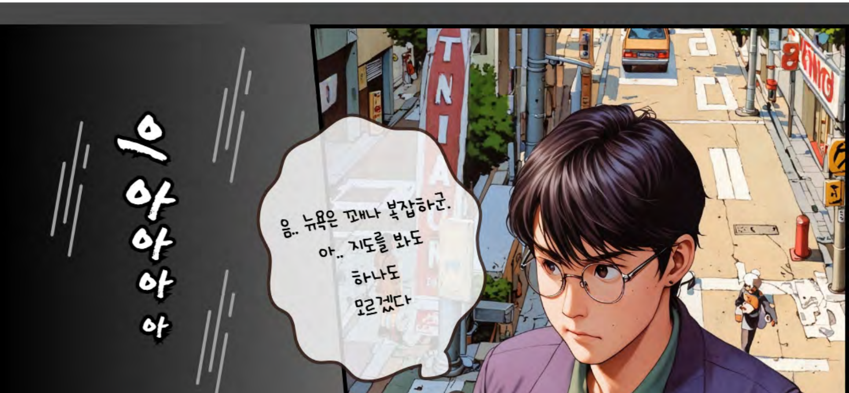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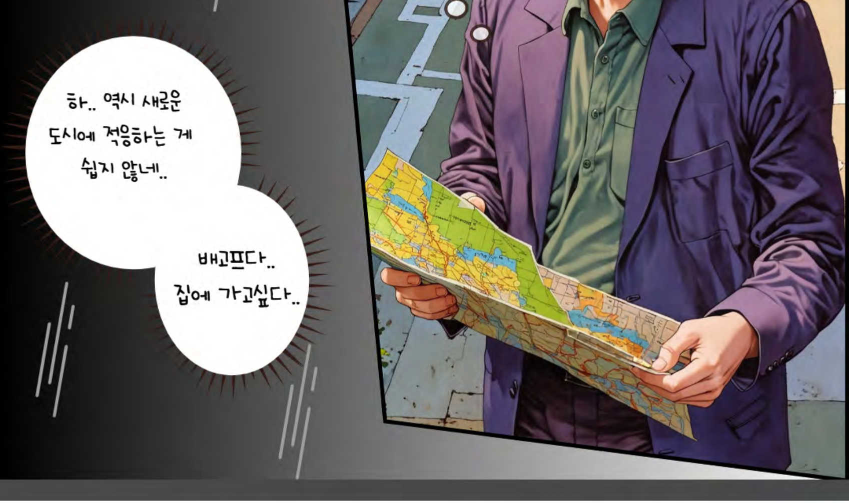
한인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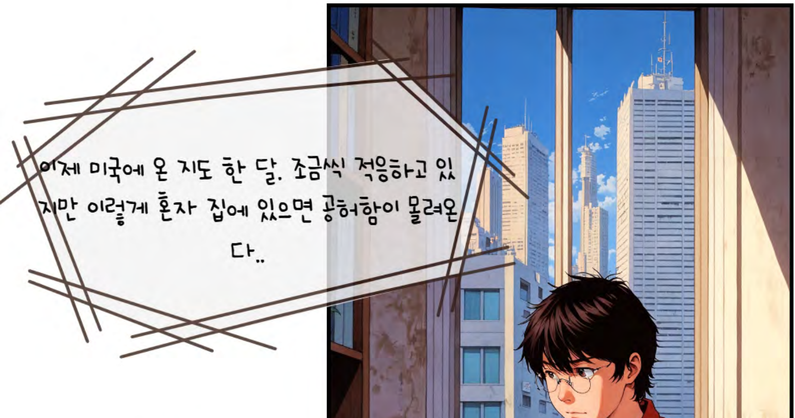
글 그림 박양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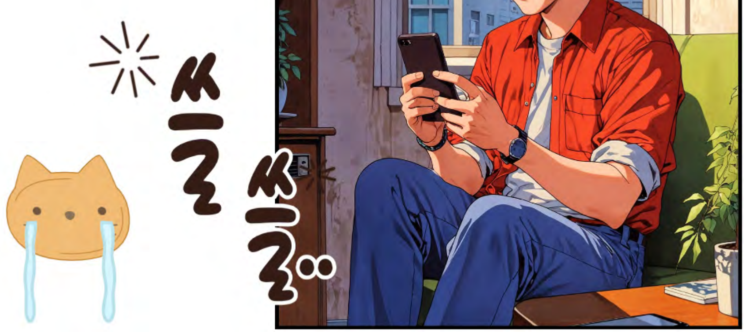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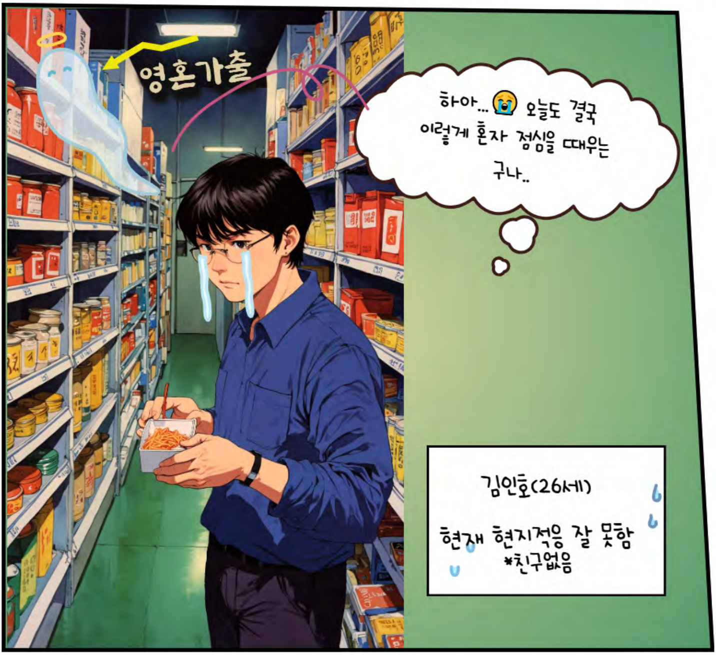

내 이름은 김인호, 올해 26세. 대학 졸 업후 오랫동안 꿈꿨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.
뉴욕 JFK 공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
자.. 이제 시작이다...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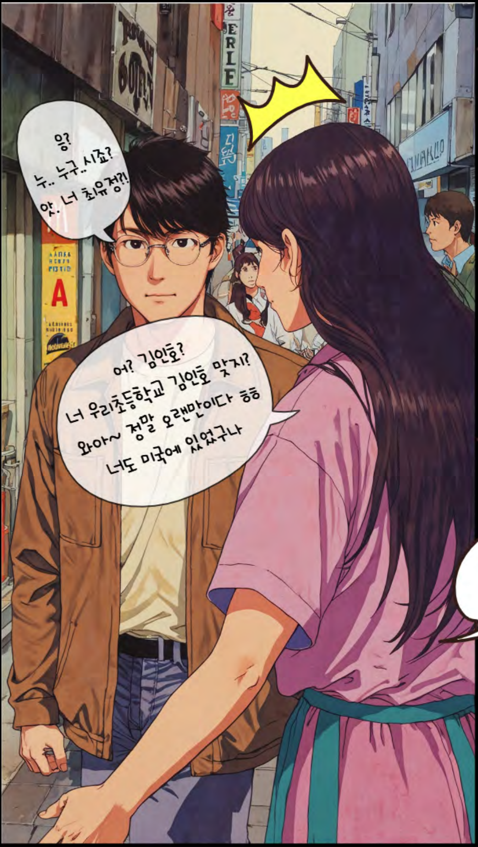

으아아아아아
음.. 뉴욕은 꽤나 복잡하군. 아.. 지도를 봐도 하나도 모르겠다


하.. 역시 새로운 도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네..
배고프다.. 집에 가고싶다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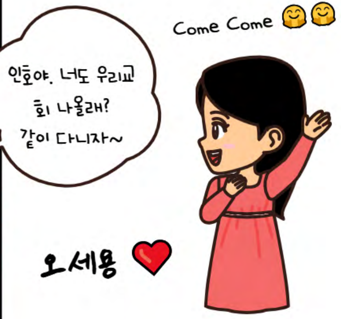

이제 미국에 온 지도 한 달. 조금씩 적응하고 있지만 이렇게 혼자 집에 있으면 공허함이 몰려온다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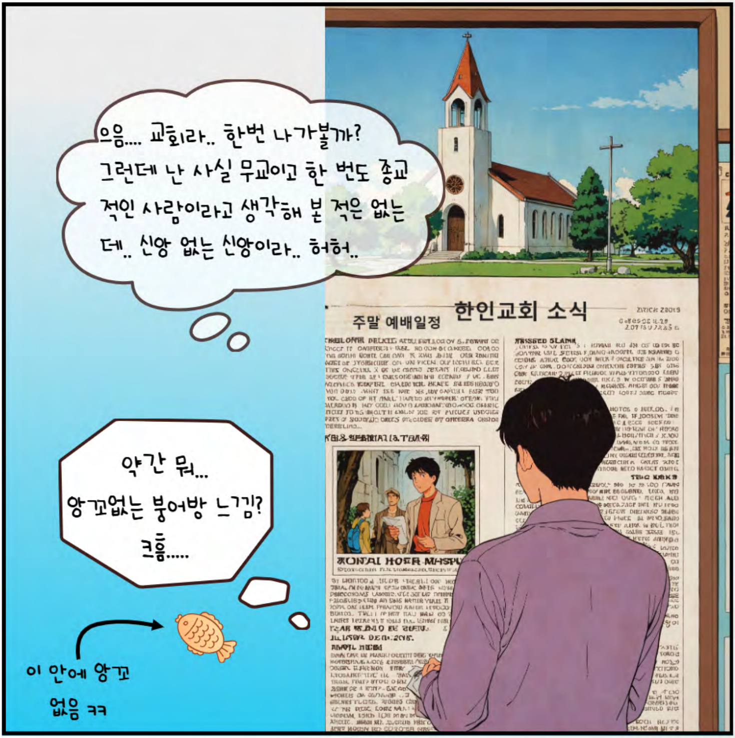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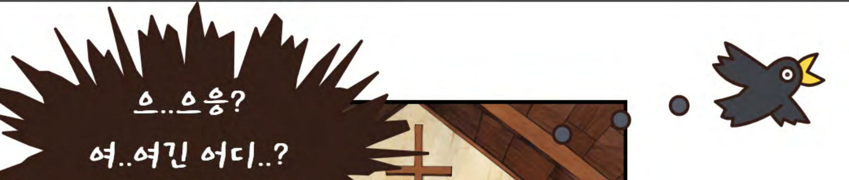

영혼가출
하아...😭 오늘도 결국 이렇게 혼자 점심을 때우는 구나..
김인호(26세)
현재 현지적응 잘 못함
*친구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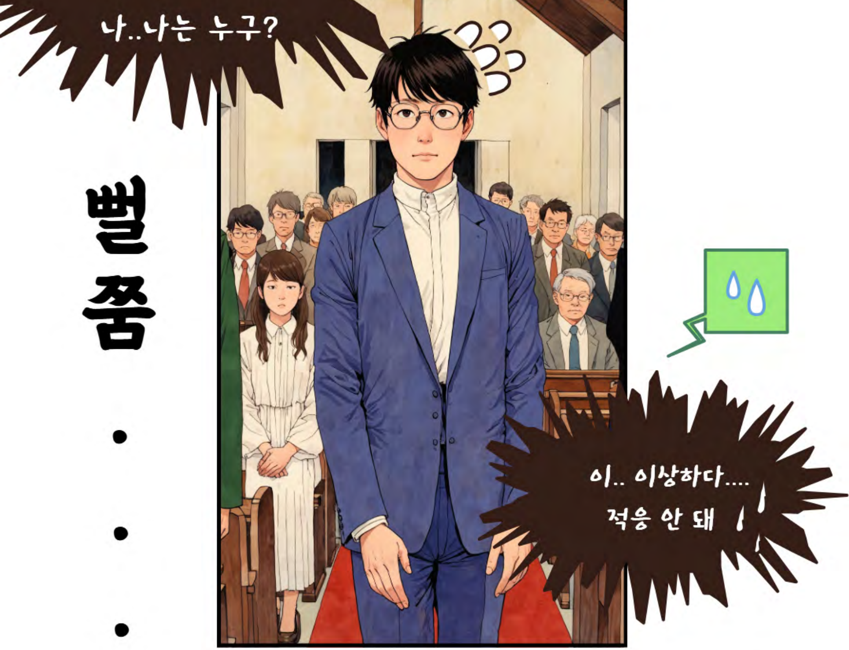

응?
누.. 누구..시죠?
앗. 너 최유정?!
어? 김인호?
너 우리초등학교 김인호 맞지?
와아~ 정말 오랜만이다 ㅎㅎ
너도 미국에 있었구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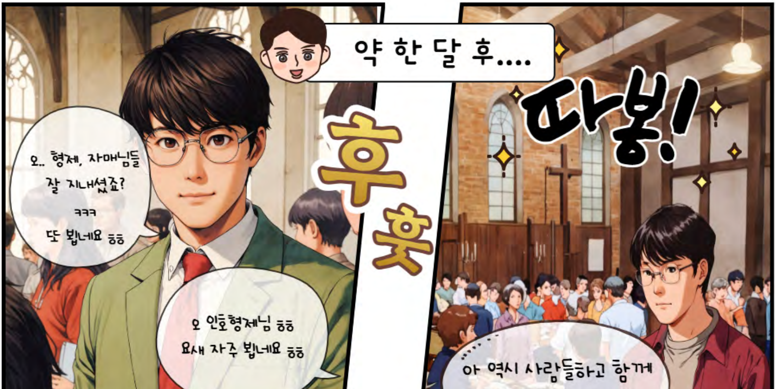
인호는 이날 길에서 우연히 초등학교때 친구였던 유정을 만나게 되었다. 이들은 반가운 마음에 서로에 관한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. 그리고 이날 유정으로부터 뉴욕에 있는 한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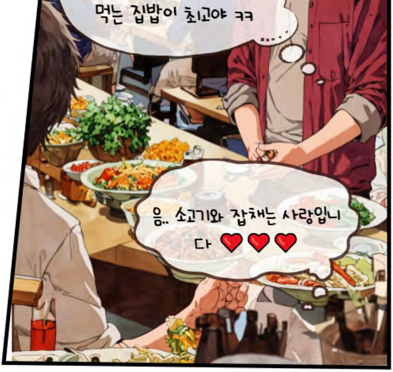

인호야. 너도 우리교회 나올래? 같이 다니자~
Come Come
오세용


으음.... 교회라.. 한번 나가볼까?
그런데 난 사실 무교이고 한 번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.. 신앙 없는 신앙이라.. 허허..
한인교회 소식
주말 예배일정
약간 뭐...
앙꼬없는 붕어빵 느낌?
크흠.....
이 안에 앙꼬 없음 ㅋ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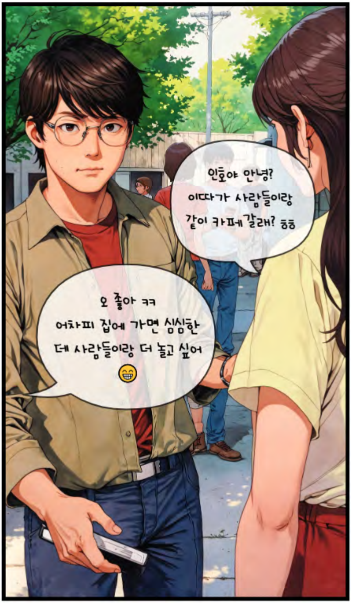



나..나는 누구?
뻘쭘
• • •
이.. 이상하다....
적응 안 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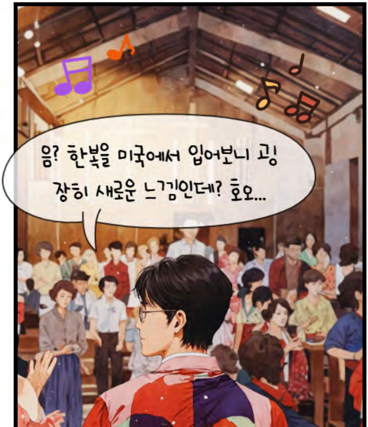

약 한 달 후....
오.. 형제, 자매님들
잘 지내셨죠?
ㅋㅋㅋ
또 뵙네요 ㅎㅎ
오 인호형제님 ㅎㅎ
요새 자주 뵙네요 ㅎㅎ
후훗
따봉!
아 역시 사람들하고 함께


먹는 집밥이 최고야 ㅋㅋ
음.. 소고기와 잡채는 사랑입니다 ❤❤❤

김인호(26세), 현재 급속도로 적응중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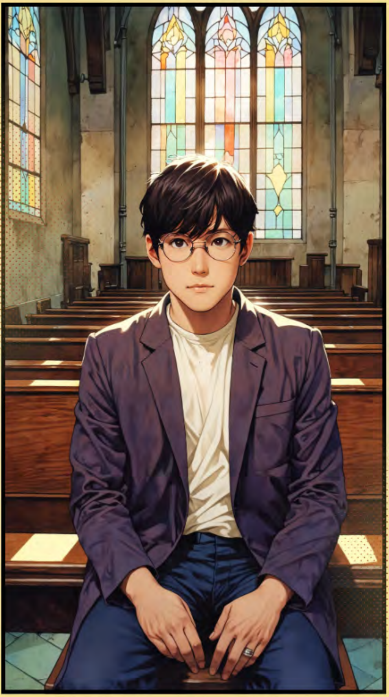

인호야 안녕? 이따가 사람들이랑 같이 카페갈래? ㅎㅎ
오 좋아 ㅋㅋ 어차피 집에 가면 심심한데 사람들이랑 더 놀고 싶어 😁

조금씩 교회 생활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고, 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문화 행사에도 참여하다보니 어느새 많은 한인들과 네트워크가 형성 되고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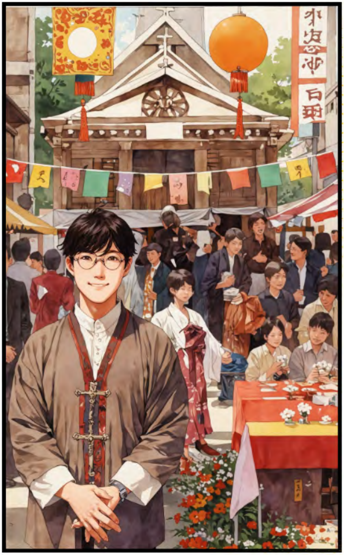

음? 한복을 미국에서 입어보니 굉장히 새로운 느낌인데? 호오...

교회를 통해 얻은 소속감과 공동체라는 의식은 뉴욕의 이방인으로서 혼자였던 인호에게 커다란 안정과 위안을 주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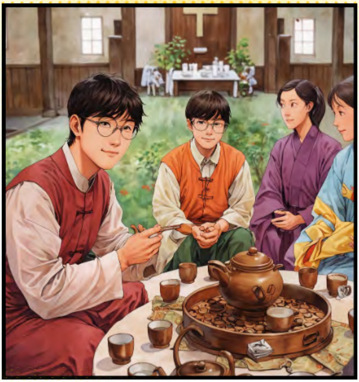
처음에는 친구의 권유와 호기심에 이끌려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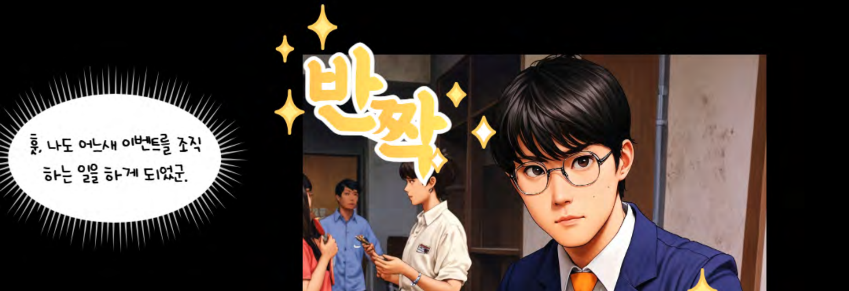
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. 이것이 '신앙심'인가?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. 그것은 '신앙심' 혹은 그 비슷한 무엇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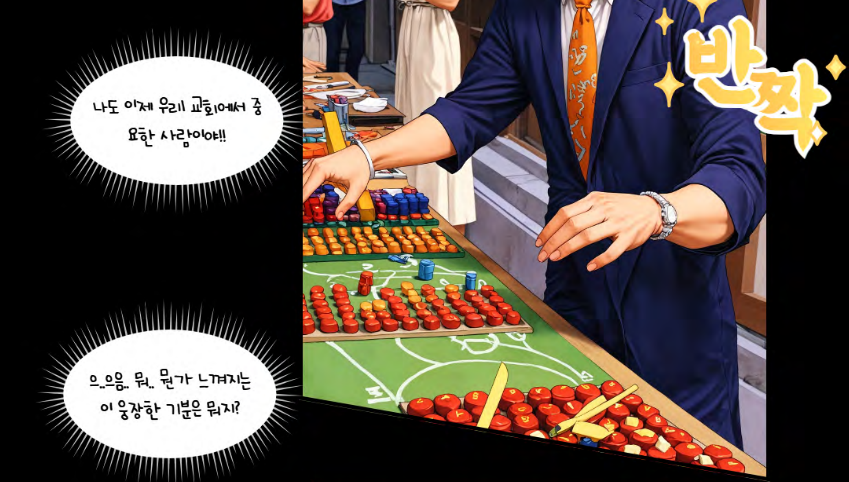


또한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에 있었을 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한국문화와 전통문화와 같은 것들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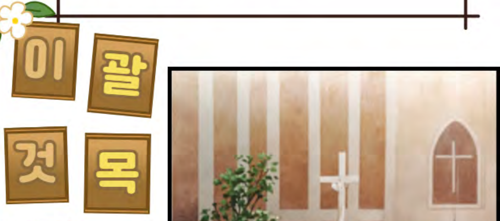
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 것이다. 이것은 그가 새로운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건설하는 과정이었다.


훗, 나도 어느새 이벤트를 조직 하는 일을 하게 되었군.
반짝


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야!!
반짝
으..으음.. 뭐.. 뭔가 느껴지는 이 웅장한 기분은 뭐지?

김인호(26세), 이제는 자신감 충만!

그는 교회 사람들과 함께 지역민들을 위한 자원봉사도 하고, 지역 공동체 프로젝트를 위한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교회를 넘어 지역 사회에도 공헌하고자 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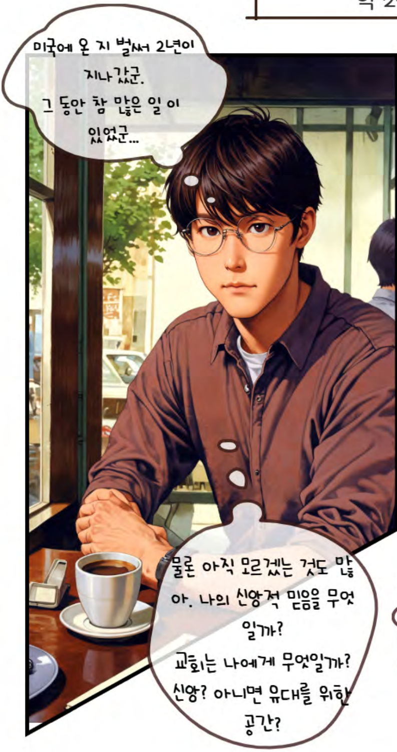
이성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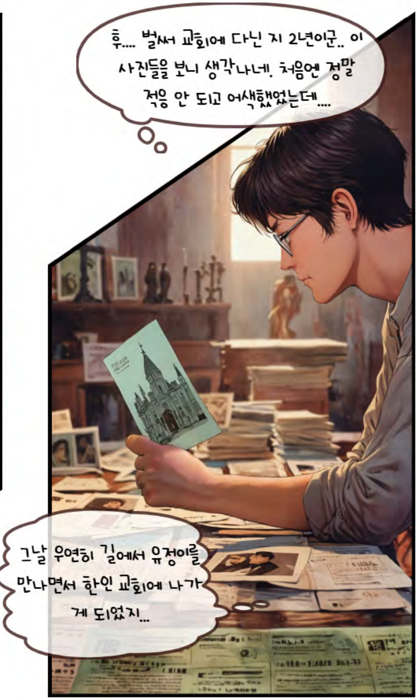
처음에 혼자 미국에 와서 방황하던 그는 교회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미국 생활에 적응했다. 이제는 교회를 넘어 지역 공동체에 도움을 주며 개인으로서도 크게 성장하였다.

우리 결혼했어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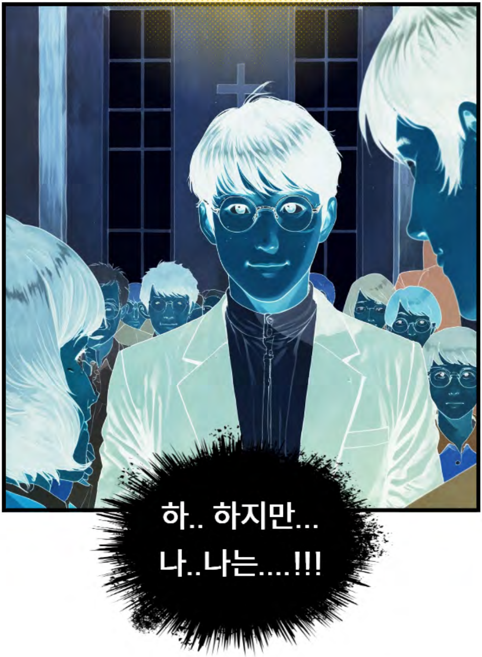
이제 교회는 나의 일부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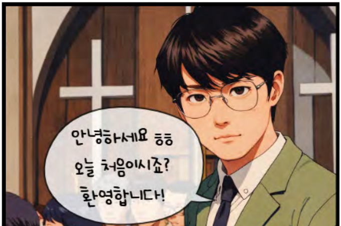
약 2년 후...


미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지나갔군. 그 동안 참 많은 일 이 있었군...
물론 아직 모르겠는 것도 많아. 나의 신앙적 믿음을 무엇일까? 교회는 나에게 무엇일까? 신앙? 아니면 유대를 위한 공간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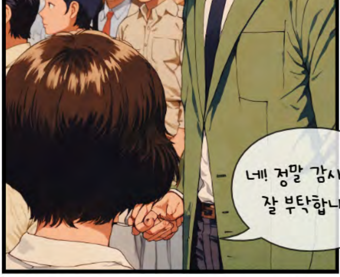

후.... 벌써 교회에 다닌 지 2년이군.. 이 사진들을 보니 생각나네. 처음엔 정말 적응 안 되고 어색했었는데....
그날 우연히 길에서 유정이를 만나면서 한인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...

이제 결정을 내려야 해...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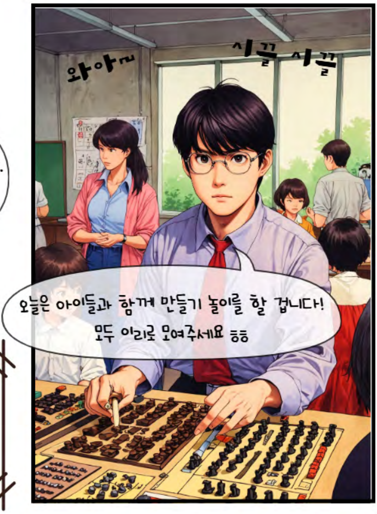



안녕하세요 ㅎㅎ
오늘 처음이시죠?
환영합니다!

교회에 남기로 했다. 교회에 남아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.


네! 정말 감사드려요.
잘 부탁합니다!!

먼 낯선 땅에 나 혼자 왔다. 이곳에서 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, 미국에서의 많은 인간관계는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. 나는 처음부터 종교가 없었고 지금도 비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. 하지만 이 커뮤니티는 지금 나의 새로운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렸다.


와아~
시끌 시끌
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 놀이를 할 겁니다! 모두 이리로 모여주세요 ㅎㅎ

김인호(28세), 기독교

끝